

#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5·18정신 계승”…호남지지 호소

이준석 대표·유승민·윤석열·원희룡 후보

국립5·18민주묘지 무명열사 묘역 참배

‘국민의 힘 참배 반대’ ‘윤석열 지지’ 시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윤석열·원희룡 대선 경선후보들이 11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지지호소했다.

이 대표와 3명의 후보들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윤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참배단 앞에 나란히 선 이들은 현

화·분향하며 민주열사의 넋을 기렸다.

이어 윤상원 열사의 묘역에서 묵념한 뒤 항쟁 41년 만에 신원이 확인된 신동남의 묘역에 헌화했다. 신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에 맞고 숨졌지만 구속자와 신원이 바뀌면서 무명열사 묘역에 안장

돼 있었다. 이후 신원 미상 유해에서 확보한 유전자와 신씨 가족으로부터 채혈한 혈액 유전자를 분석·대조한 결과 23개 유전자좌 중 21개 유전자좌가 일치, 지난 6월 최종 판명됐다. 유공자 인정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 대표와 후보들은 민주묘지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5·18정신을 이어받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광주의 영령 앞에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된 모습으로 항상 한결 갈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5·18 지사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주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 5·18 잊지 않겠습

니다”, 원희룡 후보는 “나라의 위기마다 앞장선 의로운 고장 광주 5·18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 앞머리에 올리고 국정운영에 호남과 함께 중심에 서겠습니다”라고 썼다.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는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의 ‘국민의힘 참배 반대’, 윤석열 지지자들의 지지호소 시위가 동시에 벌어지기도 했다.

호남 지지호소에 나선 이 대표와 후보들은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와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시위, 방송 토론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서선욱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유승민·윤석열 대선 경선후보가 11일 오전 광주 북구 윤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신동남 열사 묘역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그동안 무명열사 묘역에 안장돼 있었던 신동남 열사는 항쟁 41년만에 신원이 확인됐으며 현재 유공자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 이재명, 尹·洪과 양자대결 접전…정권교체론 ↑

李 35.8% vs 尹 33.2%…李 35.2% 洪 33.0% 접전  
보수, 洪 27.5% 尹 25.5% 각축전…유승민 10.5%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야권 윤석열·홍준표 후보와의 가장 양자대결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여전히 과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전 실시됐다.

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8-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가장 양자대결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 윤석열’의 경우 이 후보 35.8% 윤 후보 33.2%로 나타났다. ‘기타 후보’는 23.9%, ‘적합 후보 없음’은 4.7%였다.

‘이재명 대 홍준표’에선 이 후보 35.2% 홍 후보 33.0%로, ‘기타 후보’는 22.6%, ‘적합 후보 없음’은 6.3%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상대로는

2.6%포인트, 홍 후보를 상대로는 2.2%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서는 접전 양상이 나타났다.

법보수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선 홍준표 의원 27.5%, 윤석열 전 검찰총장 25.5%로 오차내 접전이 이어졌다.

이어 유승민 의원 10.5%, 원희룡 제주지사 5.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1%,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1.7% 순이었다.

전주대비 홍 의원은 2.3%포인트, 윤 전 총장은 4.1%포인트 동반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51.0%가 윤 전 총장을 대선후보로 적합하다고 꼽았고, 홍 의원이 33.3%, 유 전 의원 4.6% 순이었다.

내년 대선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 선택돼야 한다’는 응답이 51.5%,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 선택돼야 한다’는 응답이 39.7%로 나

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8.8%였다.

지난달(9월 3일자) 대비 ‘정권 교체’ 응답은 1.7%포인트 상승한 반면, ‘정권 재창출’ 응답은 3.0%포인트 하락했다.

정권 교체론은 20대(58.7%)·30대(55.5%)·60세 이상(58.9%)과 서울(53.3%)·인천경기(53.3%), 대구·경북(60.3%), 부산·울산·경남(61.2%) 등 대부분의 세대와 권역에서 높았다.

정권교체 응답은 보수층에선 78.6%,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94.3%에 달했다.

정권 재창출론은 40대(55.8%)와 광주·전라(64.7%), 진보층(72.1%)과 민주당 지지층(84.8%)에서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7%, 민주당 32.5%, 국민의당 8.3%, 열린민주당 7.1%, 정의당 3.6%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2.1%, 지지 정당 없음은 9.7%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국민의힘은 1.7%포인트 내렸고, 민주당은 2.7%포인트 올랐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 소병철 의원, 윤석열 전 총장 연루 고발사주 사건 수사 헌법수호 결연한 의지로 임해야

대장동 의혹사건 공정·신속 수사 위해 5대원칙 천명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윤석열 전 총장이 연루된 총선개입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어느 수사기관을 막론하고 “헌법수호의 결연한 의지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소 의원은 이 사건을 “당시 검찰 총장과 현직검사 간부가 미래통합당 하고 결탁해서 총선 결과를 뒤집어 얹으려고 기도한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며 규정하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6일만에 신속히 일정부분 수사결과를 내고 검사 이외의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이첩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든 이 사건에 대해선 “헌법을 수호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진상 규명을 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이 있다”고 설교했다.

또한 소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사건수

사의 5대 원칙을 천명해 줄 것을 법무부 장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

소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나라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라는 이원적 체도를 채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방과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장동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단군 이래 최대의 수사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의 엇갈린 주장들이 담긴 보도들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한 5대 원칙을 선언해 줄 것을 제안했다.

소 의원은 그 다섯 가지 원칙으로 “첫째,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한다.

둘째, 정치권 등 모든 외부의 간섭과 압력을 견고하게 차단하겠다. 셋째, 장관조차도 부당한 간섭과 지

휘를 하지 않는다. 넷째, 수사팀 구성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적시에 하겠다.

다섯째,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영장 청구 구속 집행, 중요 혐의점 발견, 국제 공조 절차 진행 상황 등 수사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공개 발표하겠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소 의원의 당부와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선 “헌법적 가치와 대치될 수 있는 사건인만큼 역사적인 소명을 갖고 임하고” 있으며,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수사 검사로만 16명으로 적지 않은 규모로 구성돼 있으며, 외부 세력의 간섭과 관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오해를 받을 지휘나 관여를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유지할 것이다.

수사팀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추가로 발생하면 대검과 상의해서 적절히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주요 수사상황에 대한 공개여부는 검토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